

새로 나온 책

단편으로 경험하는 '페미니즘'의 변화

'페미니즘'은 더 '핫'해지고 있다. 또 건강해지고 있다고 본다. 성희롱·성폭행 폭로 '미투운동' 뿐 아니라, 긴 역사 속에서 '여성'이라는 강제당했던 억압들, 이미지들, 역할과 관계들에 대한 불편한 진실을 더 디테일하게 풀어놓으려는 이야기꾼들도 많아졌다. 단순히 '주의', '주장'이 아닌, 일상 속 여성들이 겪는 부자연스러운, 부당하게 느끼는 다양한 측면들을 '싸움'이 아닌 '이해'를 위해 용기 내어 말하는 이들이다. 많은 '엄마-딸' 관계가 가부장제 안에서 얼마나 어렵고 힘든 관계로 꼬여있는지를 소소하게, 담백하게 풀어낸 책을 우연히 접하면서 이런 솔직한 이야기들이 계속돼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다시 도리스 레싱(1919~2013년)의 소설을 읽는다는 건 페미니즘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점검해볼 수 있는 경험을 제공한다. 영국을 대표하는 작가 도리스 레싱은 아프리카, 1·2차 세계대전의 후유증, 결혼제도·모성·가정, 계급사회, 공산주의와 자본주의 등 20세기 사회, 문화, 정치 문제를 문학적으로 잘 형상화한 작가로 알려져 있다.

최근 번역·출간된 레싱의 단편선 '19호실



도리스 레싱 단편선: 19호실로 가다

도리스 레싱 지음/김승욱 옮김/문예출판사

로 가다'에는 작가의 초기 단편소설들이 담겨 있다. 전통적인 사회질서와 체계가 붕괴된 1960년대 전후 유럽사회의 단면을 포착하며, 사회로부터의 억압, 개인의 일상과 욕망, 그리고 저항을 그려냈다. 특히 당대의 중년 여성에 초점을 맞춰 사회가 요구하는 '여성 이미지'에 맞게 역할해 나가야하면서도, 개인으로서 자신의 정체성과 독립성을 잃지 않으려 몸부림치는 소설 속 인물들의 갈등과 분노, 한계들이 나타나있다. 그럼에도 소설은 중년 여성이 지닌 연륜과 힘을 긍정하며, 대체로 온 여성간의 연대로 희망을 이야기한다.

384쪽, 1만3800원. /오진희 기자 valere@

왜 유독 그 가게만 잘될까

현성운 지음/다산북스



이 책에는 저자가 16년간 외식업에 종사하며 다져온 자신만의 족으로 장사 잘되는 가게와 안되는 가게를 구별해내며, 고객이 줄을 서는 가게의 숨겨진 서비스와 공간의 비밀을 알려준다. '맛은 기본이며, 운영 시스템으로 승부하라'는 저자는 '쥬스떡볶이', '바르다 김선생' 등 국내 외식 프랜차이즈 기업에 몸담으며 서비스 운영 매뉴얼을 구축하고 교육시킨 (주)외식인의 대표다.

268쪽, 1만5000원.

과학 같은 소리하네

데이브 레베넷 지음/이영아 옮김/더퀘스트



이 책은 반과학적 정치인들의 조작과 왜곡을 통렬하게 비판하고 있다. 낙태를 금지하려고 "진짜 갭간이라면 임신할 리 없다"고 말한 미국 전 하원의원, "지구온난화는 중국이 미국 제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려고 지어낸 말"이라고 트위터에 글을 쓴 트럼프 대통령까지. 저자는 가짜 과학을 퍼트리며 세상을 속이려는 정치인들에 넘어가지 말고, "인류가 꾸준히 진보하려면 다 함께 일어나 반과학적 통치에 대항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300쪽, 1만5000원.

내게 무해한 사람

최은영 지음/문학동네



'쇼코의 출간' 후 2년 만에 선보이는 최은영의 두번째 소설집이다. 이 책은 과거의 기억과 현재의 생각을 바탕으로 '관계'에 대해 이야기한다. 소설 속 주인공은 지난 시절을 낭만화하기도, 자기 자신을 쉽게 용서하지도 않는다. 사랑했지만 욕심과 위선으로 이별하게 된 경험, 이십대를 공유했지만 지금은 헤어진 이들에 대한 회상, 가부장적 분위기에 자란 두 여자아이의 이야기 등 다양한 관계, 특히 여성들의 관계가 집중적으로 그려져 있다.

328쪽, 1만3500원.

오늘의 날씨

해돋이 / 05:18 | 해짐 / 19:56

7월 9일
음력 : 5월 26일

수도권 날씨
24~20°C

운동 지수 ██████████
빨래 지수 ██████████
세차 지수 ██████████
외출 지수 ██████████



프랑스 vs 벨기에 | 잉글랜드 vs 크로아티아

전통 강호 vs 신흥 강자 '맞대결'

잉글랜드·프랑스, 수십년 전 우승 벨기에·크로아티아, 첫 우승 노력

2018 러시아월드컵
4강 경기 일정
(한국시간 기준)

7월 11일(수)
오전 3시
상트페테르부르크 스타디움
프랑스 vs 벨기에

7월 12일(목)
오전 3시
루즈니키 스타디움
크로아티아 vs 잉글랜드

연합뉴스

크로아티아가 러시아와 8강전에서 승부차기 우승을 끝으로 2018 국제축구연맹(FIFA) 러시아월드컵 4강 진출국이 모두 가려졌다.

유럽 전통 강호 프랑스와 잉글랜드, 떠오르는 별 벨기에와 크로아티아가 결승을 놓고 다툰다.

FIFA 랭킹 7위 프랑스와 3위 벨기에는 오는 11일 오전 3시 상트페테르부르크 스타디움에서 4강 첫 대결을 펼친다.

양 팀은 2000년 이후 총 5번 겨뤘다. 벨기에가 2승 2무 1패로 근소하게 앞서 있다. 가장 최근에 치렀던 경기는 2015년 6월에 열린 친선경기로, 벨기에가 4-3으로 이겼다.

프랑스는 젊은 피를 앞세워 지난 2018 러시아 월드컵에서 제 2의 '아트



2018 FIFA WORLD CUP WINNER'S TROPHY

사커' 부활을 노리고 있다. 프랑스의 막강화력을 보면 우승 후보로 점쳐진다.

떠오르는 신인 킬리안 음바페를 비롯해 은골로 캉테, 안토니 그리즈만, 올리버 지루, 사무엘 움티니, 폴 포그바 등 유수 유럽 클럽에서 뛰는 선수들이 주축이다.

유럽의 떠오르는 신성 벨기에는 사상 첫 월드컵 결승행을 노리고 있다. 골득점력은 예선전부터 심상치 않았다. 예선전 로멜루 루카쿠는 11골, 에당 아자르는 6골, 드리스메르텐스와 토마스 피니어는 5골을 넣어 막강한 화력을 보여줬다. 문제는 이 선수들이 기량이 예사롭지 않다. 베테랑 뱅상 콤파니도 팀 중심을 잡고 있어 이번 프랑스전에서 화려한 골을 보여줄지 기대가 되는 팀이다.

FIFA 랭킹 20위 크로아티아와 12

위 잉글랜드는 12일 오전 3시 러시아 모스크바 루즈니키 스타디움에서 4강전을 치른다.

1998년 프랑스 월드컵 이후 사상 두 번째로 준결승에 오른 크로아티아는 20년 전 프랑스에 1-2로 패배, 결승 진출이 좌절된 바 있다. 크로아티아는 이번 대회 최대 복병으로 꼽히는 팀으로 덴마크와 러시아를 꺾고 4강 신화 재현을 꿈꾸고 있다. 루카모드리치, 마리오 만주키치 등을 앞세워 세계 축구사에 '사건'으로 기록될 성적을 남기게 될지 전 세계 팬들이 숨죽여 지켜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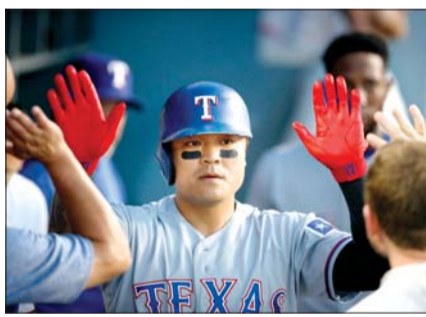
잉글랜드는 1990년 이탈리아 대회 이후 28년 만에 준결승에 진출했다. 축구중국의 월드컵 우승을 염원하는 잉글랜드 선수들은 평균 연령은 26.1세로 32개국 중에 두 번째로 젊다. 해리 케인과 애슐리 영, 제시 린가드, 마크스 래시포드 등을 앞세워 이번 대회에서 갈망한 우승을 노리고 있다. 스웨덴전에서 보여준 상대 팀의 역습을 무실점으로 막아내면서 날카로운 크로스와 수비수를 허물어내는 전술로 저력을 과시하고 있다. 전적은 잉글랜드가 앞서 있다. 두 팀은 총 7번 맞붙었는데 잉글랜드가 4승 1무 2패를 기록했다.

이번 준결승전은 벨기에와 크로아티아는 첫 우승을 노리는 팀으로 월드컵 우승이 간절할 수밖에 없고 잉글랜드와 프랑스는 마지막 우승 후 52년, 20년을 기다려온 팀이다. 4강전에서 승리한 두 팀은 16일 루즈니키 스타디움에서 결승전을 치르고 3~4위 결정전은 14일 상트페테르부르크 스타디움에서 열린다.

/최규춘 기자 ch9720@metroseoul.co.kr

46경기 연속출루 추신수... 구단 신기록 앞뒤

오늘 디트로이트전 성공 땀 신기록 풀머 상대 출루율 '0'... 평정심 강조



텍사스 레인저스 추신수. /연합뉴스

추신수(36·텍사스 레인저스)가 대기록 달성을 앞두고 까다로운 투수 마이클 풀머(25·디트로이트 타이거스)와 맞선다.

추신수는 지난 8일(한국시간) 미국 미시간주 디트로이트의 코메리카파크에서 열린 2018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 디트로이트 타이거스와의 방문경기에서 1번 지명타자로 선발 출전해 4타수 2안타를 치며 46경기 연속 출루 행진을 이어갔다. 윌리엄 프랑코가 1993년 달성한 텍사스 구단 역대 단일시즌 최다 연속 출루 최장 기록과 타이다.

추신수가 9일 디트로이트전에서도 출루에 성공하면 '텍사스 단일시즌 최다 연

말했다. 그러나 "기록에 대해 크게 신경 쓰지 않는다. 나는 최선을 다할 뿐이다"라고 '평정심'을 강조했다.

추신수는 최근 맹활약으로 타율 0.294, 출루율 0.402로 끌어올렸다. 아메리칸 리그 타격 14위, 출루율 4위다.

성적적으로는 충분히 생애 첫 올스타전 출전도 가능하다. 추신수는 팬 투표에서 밀렸지만, 감독 추천으로 올스타전 명단에 포함될 수 있다. 추신수는 "어떤 일이 일어날지 누구도 알 수 없다. 어떤 결과가 나올지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제프 베니스터 텍사스 감독은 추신수의 활약에 고무됐다. 베니스터 감독은 8일 MLB닷컴과 인터뷰에서 "추신수가 매우 인상적인 활약을 펼치고 있다. 그는 정말 엄청난 선수다"라고 극찬했다.

/연합뉴스

'엔트맨과 와스프' 개봉 5일만에 200만명 돌파

마블 영화 '엔트맨과 와스프' (엔트맨2)가 개봉 5일 만에 200만 명을 돌파했다.

지난 8일 영화진흥위원회 영화관입장권통합전산망에 따르면 '엔트맨2'는 이날 오전 누적 관객 수 217만8천235명을 기록했다.

마블 영화는 지난 10년간 '아이언맨'부

터 '어벤저스: 인피니티 워'까지 총 19편이 9천500만 명을 동원했다. '엔트맨2'가 500만 명 이상을 동원하면 마블영화는 누적 관객 1억 명을 돌파하게 된다.

'엔트맨2'는 '시빌 워' 사건 이후 히어로와 가장의 역할 사이에서 갈등하는 엔트맨과 새로운 파트너 와스프의 예측불

허 미션과 활약을 담았다.

권상우·성동일 주연의 '탐정:리턴즈' (탐정2)는 지난 7일 기준 총 관객 300만 명을 넘어섰다. 이는 올해 개봉한 코미디 영화 '조선명탐정: 흡혈괴마의 비밀', '바람 바람 바람' 등을 모두 넘어선 수치다.

'탐정2'는 지난달 13일 개봉 이후 신작들의 공세에도 박스오피스 4위권을 유지하며 한 달째 장기 흥행을 이어가고 있다.

/연합뉴스